

散文詩、츠르게네프의 언덕.

나는 고개길을 넘고있었다……그때
세少年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메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즈매통, 쇳조각, 헌 양말 짝 등
廢物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덥수룩한 머리털, 식침언 얼굴에 눈물고인 充血된
눈, 색 잃어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襤褸 찢
겨진 맨발,

아-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어린少年
들을 삼키었느냐!

나는 惻隱한마음이 움죽이였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였다. 두툼한 지
갑、時計、손수건……있을것은 죄다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勇氣는 없었
다.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거릴뿐이였다.

多情스레 이야기나 하리라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充血된 눈으로 흘끔 도려다 볼뿐이
였다.

둘째아이도 그러할뿐이 였다.

셋째아이도 그러할뿐이였다.

그리고는 너는 相關없다는듯이 自己네끼리 소근
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우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터가는 黃昏이 밀려들뿐——

一四年九月

투르게네프의 언덕

나는 고개길을 넘고 있었다……그때 세 소년 거지
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메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즈매통, 쇳조각, 헌 양말 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세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덥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고인 充血된
눈, 색 잃어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키
었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이였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였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만지작 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
보았다.

첫째 아이가 充血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 볼 뿐이
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
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질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1939. 9.